

보도시점 2025. 9. 12.(금) 10:00 (2025. 9. 12.(금) 석간)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출범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12일(금),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이하, ‘포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인공지능(이하, ‘AI’) 전문가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대에 의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등 노동과 일자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회의에서는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AI 전환 대응 정책」을 주제로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과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이 발표하고,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실제 산업 현장의 AI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직무 재정의와 재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은 미·중의 기술패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 기반 시설 강화와 산업 분야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발제했다.

향후 포럼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AI 활용 기업 및 접목 행정 사례 분석, AI 전환에 따른 인재 양성 및 인사노무관리의 법적 쟁점, AI 전환에 따른 사회안전망 및 AI 활용 고용노동서비스 개선과 같은 의제를 논의하고, 추후 가칭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등 신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년 예산안에는 AI 등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5만명을 양성하고, AI 훈련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중소기업의 AI 기초·융합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반영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일자리의 변화와 대체를 불러올 수 있는 도전이기도 하다”라면서,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을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21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김철수 (044-202-7212) 박태군 (044-202-7211)

붙임 1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개요

□ 일시 · 장소

- '25. 9. 12.(금) 10:00~11:35 /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 * 서울 중구 소공로 70

□ 참석

- (노동부) 장관, 고용정책실장^代, 직업능력정책국장, 고용정책총괄과장 등
- (전문가)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등 포럼 위원 및 발제자 14명

□ 논의 주제(안)

- 발표 1: AI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운영계획(고용정책총괄과장)
- 발표 2: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 발표 3: 정부의 AI전환 대응 정책(김득중 NIPA 부원장)

□ 세부 일정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일정	비고
10:00~10:10	개회	사회 : 고용정책총괄과장
	인사말씀	장관, 포럼 좌장
10:10~11:30	〈발표 및 토론〉 발표 ① AI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운영계획 발표 ② AI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발표 ③ 정부의 AI전환 대응 정책	
11:30~11:35	마무리 말씀	장관, 포럼 좌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오늘 ‘AI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의 첫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AI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조 현장의 공정 관리부터
사무업무 지원, 서비스 산업의 고객 응대,
심지어 창작과 연구의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속도 또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일자리의 미래,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인사말은
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AI가 작성한 원고입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AI는 우리의 일터 곳곳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직무의 성격을 바꾸거나 일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의 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AI 기반 고용·노동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없는지, 채용·평가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AI로 인해 일자리 상실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미리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은 그 고민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세계지식포럼은
대전환기를 향해하는 인류의 “뉴 오더세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호메로스의 고전 ‘오딧세이’가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는
담대한 여정을 담고 있듯이,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침반을 들고
새로운 도전의 항해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장’입니다.

정부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산업과 현장의 목소리,
학계의 분석,
그리고 사회 각계의 제언이 모여야만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적인 통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I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